

# 단순함에 관한 이야기

내가 제일 처음 산 프린터는 꽤나 번거로운 물건이었다. 직접 부품을 조립해야 했을 뿐 아니라 케이블이 들어있지 않아서 시내까지 사러 나가야 했다. 돌아와서 하드웨어 설정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매뉴얼을 읽고, 프린터 덮개를 열고, 종이크립으로 설정에 따라 스위치를 맞추었다. 몇번의 시도 끝에 제대로 됐다. 그 후에는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했다. 실수와 욕설과 고된 작업으로 몇 시간을 보낸 후 모든 과정이 끝났다.

지난 몇 년간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접할 때마다 이런 일을 겪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. 휴대폰을 세팅하고, 랩탑을 PDP TV에 연결하고, 날씨를 알기 위해 링크가 113개나 있는 웹페이지를 세 페이지쯤 읽어야 한다. 우리의 삶을 좀더 쉽게 해줘야 할 기술이 앞을 가로막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.

올해 집에서 쓸 프린터를 새로 샀다. 설치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. 박스에서 프린터를 꺼내고, 새밀한 부품들을 고정시킨 오렌지색 테이프를 떼어내고, 카트리지를 넣고, 스위치를 켜다. 이 시점에서 프린터는 우리집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하겠다고 '패스워드를 알려주세요.' 라는 메시지를 띄웠다. 그게 끝이었다. 프린터와 컴퓨터가 제대로 연결되었다. 새 프린터를 설정하는 것이 새 라디오를 플러그에 꽂는 것처럼 간단했다.

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. 항상 이렇게는 안 되나?

이런 의문을 가진 게 처음은 아니었다. 기술을 단순하게 만드는 게 지금까지 내가 해 온 일이다. 문제는 단순함에 대한 조언들이 대부분 모호하다는 것이다. '과유불급<sup>is so</sup> is more' 정도가 전부다. 그래서 효과적인 전략과 실제 사례, 공유할 만한 얘기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다.